

S-Oil, 노벨상 목표 과학문화재단 설립

S-Oil은 순수과학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<재단법인 S-Oil 과학문화재단>을 설립하고 1월31일 현판식을 가졌다.

S-Oil은 과학문화재단에 21억원을 출연했으며 매년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.

오명 전 부총리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S-Oil 본사가 있는 여의도 63빌딩에 마련됐다.

과학문화재단은 앞으로 국내 대학 이공계 분야 대학(원)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각종 연구기관의 학술논문, 연구 사업을 도울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11/01/31>